

EA 공급난 “3월 10만원 추가인상”

KC&A, 2월 kg당 960-950원 거래 ... 1-2월 가격인상으로 가수요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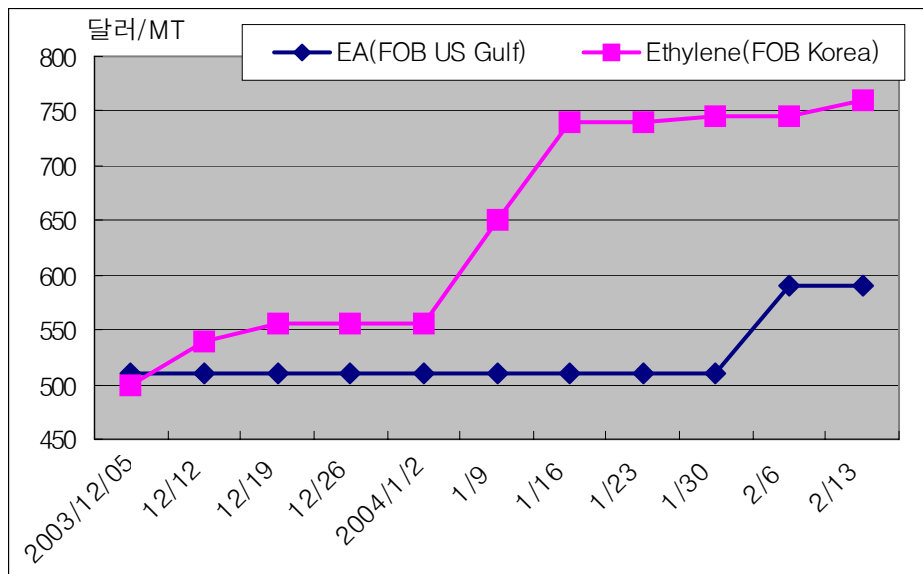
EA(Ethyl Acetate) 2월 가격이 경인지역 도착도 기준 kg당 960-950원으로 1월 대비 100원 인상됐다.

EA 시장 관계자는 “에틸렌(Ethylene) 가격폭등으로 EA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, 시장가격도 kg당 950원이나 3월 국내 독점생산기업인 KC&A가 EA 가격을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알려졌다”고 밝혔다.

EA는 국내에서 KC&A가 독점 생산하고 있는데, EA의 원재료인 Acetaldehyde가 에틸렌은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. 에틸렌은 2004년 나프타 및 원유가격 불안정으로 가격이 폭등해 2월 FOB Korea 톤당 700달러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.

원료인 AA(Acetic Acid)도 메탄올(Methanol) 가격상승으로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Celanese와 Millennium이 아시아 거래가격을 1/4분기에 50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해 국내 독점 생산기업인 삼성BP화학이 가격인상을 고시한 상태이다.

EA & Ethylene 가격추이



EA는 원재료 가격상승과 추가가격인상에 대한 시장전망 등으로 수요의 상당부분이 가수요로 파악되고 있는데, 가수요에 따른 공급타이트로 3월 추가인상을 가능케 할 것으로 분석된다.

EA는 KC&A가 국내 공급되는 수입품을 정리하기 위해 2003년 상반기에 저가정책으로 공격적인 Marketing을 펼친 이후 거래가격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.

2003년 하반기 내수경기 침체 및 달러에 의한 가격 불안정으로 가격인상에 실패했던 EA는 2004년 들어서야 원재료 가격상승분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 <김동민 조사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4/02/27>